



17일 일본 후쿠오카 세이켄그래픽스 본사에서 열린 동아엠텍과 세이켄그래픽스사 간의 '윤전기 정비사업'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무카에 카즈토 세이켄그래픽스 영업본부장, 코이케 슌무 산업기기사 본부장, 우메노 타츠로 전무, 나미타 쇼타 대표, 강승호 동아엠텍 대표, 이준우 시스템테크놀로지 대표, 라인동 동아엠텍 이사. 사진제공 | 동아엠텍

동아엠텍, 日기업과 '윤전기 정비사업' 맞손

(세이켄그래픽스)

동아엠텍, 윤전기·FM사업 다각화 세이켄그래픽스, 日시장점유율 70% 신재생에너지 장비 제작 등 진출 윤전기 정비 분야 협력 원원 기대



나미타 쇼타 세이켄그래픽스 대표(왼쪽)와 강승호 동아엠텍 대표.

동아엠텍(대표 강승호)이 17일 일본 후쿠오카 세이켄그래픽스 본사에서 세이켄그래픽스와 윤전기 정비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세이켄그래픽스는 1950년 설립 초기부터 신문인쇄 시설인 윤전기 정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다. 이후 윤전기 부품 제조사업을 거쳐 첨단기술이 집약된 초고속 회전체인 윤전기 메이커로 성장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연판주조기, 활판 윤전기의 옵셋 윤전기로의 전환, 신문반송캐리어 및 컬러 윤전기 등 신문제작 분야의 각종 시설을 한국 등 해외에 납

품하고 설치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시아 신문, 요미우리 신문, 마이니치 신문, 니혼게이지 신문, 혼다 자동차,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주요 고객이며 특히 신문 캐리어, 컨베이어 시스템 및 트럭 게이트 시스템과 같은 신문 발송 장비 부문에서 신문 강국 일본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세이켄그래픽스

의 Mark III 캐리어는 현재 일본의 거의 모든 신문사가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현재 세이켄그래픽스는 풍력,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식품 생산 장비 및 환경관련 시설 제작 분야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엠텍은 동아일보 인쇄를 담당하는 동아프린테크와 발송전문회사 동아MD가 합병해 2023년 새롭게 출범한 회사다. 104년간 동아일보 인쇄와 발송을 전담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윤전기를 비롯한 산업용 공작기계와 부품의 설계, 제작, 유지, 보수 등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동아미디어그룹(DAMG) 6개 사육과 드라마 스튜디오인 용인 드림캐논의 시설, 보안, 미화 등 발당관리(FM)사업도 펼치고 있다. 신문인쇄 부산물인 PS판 재활용 사업 등 21세기 경영 화두인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미타 쇼타(峯田正太) 세이켄그래픽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회사의 첨단기술과 노하우를 동아엠텍에 전폭 지원하여 동반자 관계를 다지겠다"며 "세이켄과 동아엠텍이 하나가 돼 윤전기 정비사업 뿐 아니라 로봇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세이켄그래픽스의 한국 대리점인 시스템테크놀로지의 이준우 대표는 "이번 기술 협약은 신문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양사간 원원이 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강승호 동아엠텍 대표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동아엠텍은 세이켄그래픽스와 윤전기 정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미래 사업 진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양사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롯데하이마트 PB 냉장고, 3000대 완판 29만9000원 가성비 눈길...1인 가구 고객들 호응

롯데하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인 '하이메이드 싱글원 냉장고'(사진)가 1일 판매 시작 이후 2주만에 초도물량 3000대 완판을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 및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29만9000원에 내놓았다. 에너지효율 1등급, 245L 용량, 슬림한 디자인 등으로 1인 가구 및 서브 냉장고를 원하는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추가 비용 없이 5년 A/S연장보증보험을 적용해 수리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과 자사 온라인몰에서 예약판매로 전환해 운영 중이며, 6월부터 입고 물량을 2배 확대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박병용 롯데하이마트 PB전략실장은 "싱글원 냉장고를 구매한 2030 고객 중 3분의 1은 신규 고객으로, 자사 PB 상품을 다양한 고객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인구 구조 변화 및 소비트렌드를 고려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강원랜드, '모바일 카지노 발권시스템' 도입

강원랜드는 20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카지노 발권시스템'을 도입한다. 카지노 입장고객은 '하이원 리조트 모바일 앱'을 통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ARS예약을 통해 빠른 순번을 배정받은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모바일 발권은 오전 6시10분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앱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입장료 9000원을 결제하면 된다. 발권 수수료가 88원은 강원랜드가 납부하지만 취소 시 발생하는 88원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강원랜드는 이와 함께 9월에는 안전인식과 지정맥을 활용한 생체정보 입장 시스템도 도입해 스마트입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키자니아에 '포카리스웨트 수분 연구소' 오픈

동아오츠카가 서울 잠실 소재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에 '포카리스웨트 수분 연구소'를 오픈했다. 어린이에게 몸속 수분 보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삼투압 기계를 통해 몸속 수분이 필요한 시점과 수분이 채워지는 원리에 대해 배운다. 또 증강현실 시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체 활동을 통해 갈증을 야기하고, 포카리스웨트를 통해 수분 충전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 후에는 포카리스웨트와 함께 3D 홀로그램 포토 카드를 증정한다. 이준철 포카리스웨트 브랜드매니저는 "어린이 참가자가 수분 보충의 중요성을 이해해 바른 수분충전 습관 및 온열질환에 대비하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려대안산병원, 아프리카미래재단과 업무협약

고려대안산병원은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과 16일 병원 미래의학관 6층 리베르타스 라운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아프리카 대륙의 보건 의료와 교육사업,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홍보 콘텐츠에도 공동시행 활동을 명시한다.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은 실제 사업 진행 시 논의한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아프리카 25개국에서 보건 의료분야와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의료부 등록 공익법인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서 명예 경영학박사

최고 경영자로서 경제발전 기여 공로

권오갑 HD현대 회장(사진)이 17일 모교인 한국외대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는 권 회장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공로로 이번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어과 71학번인 권 회장은

1978년 HD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이후 HD현대를 기술 중심의 글로벌 종합중공업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던 2014년에는 HD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취임해 고강도 개혁을 통해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2017년에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2019년 11월 HD현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조선·에너지·건설기계 등 3대 핵심축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HD현대는 2023년 기준 매출 61조3313억 원, 영업이익 2조316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시가총액은 2014년 말 10조1000억 원 규모에서 현재(5월 10일 기준) 50조100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권 회장은 2021년 전문경영인 최초로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전당'에 헌액됐으며, 2023년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권 회장은 학위 수여식에서 "앞으로도 경영자로서 사명감과 원칙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K패션, 파리를 뜨겁게 달구다"…LF 헤지스, S/S패션쇼 성료

캐주얼 니트·치노 팬츠 기반으로 클래식한 캐주얼·프레피룩 선배 리빙 소품 브랜드와 협업도 진행

LF 헤지스가 최근 프랑스 파리 프랭팡 백화점 주최로 열린 '프랭팡 파리 코리아 클럽'에서 '2024 봄·여름 시즌 컬렉션' 패션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프랭팡 파리 코리아 클럽은 'K-패션'을 주제로 한국과 프랑스 간 패션, 문화, 예술, 라이프스타일 등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행사다. 헤지스는 2024 봄·여름 시즌 아이템인 캐주얼

니트, 린넨 셔츠, 치노 팬츠 등 클래식한 캐주얼룩과 여름 프레피룩(미국 명문 사립고 학생이 입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의상) 착장을 공개했다. 유럽의 문화적 감성과 K-패션 스타일을 정교하고 조화롭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훈 LF 헤지스 글로벌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K-패션 브랜드의 위상과, 현장에서 집중 조명 받은 헤지스의 유럽 시장 내 존재감을 확인했다"며 "향후 유럽 등으로 글로벌 확장을 모색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브랜드 작업을 지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LF 헤지스는 리빙 소품 브랜드 사무엘스몰즈와 협업한 한정 에디션

'수퍼 헤지스'를 선보이고, 26일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사무엘스몰즈 쇼룸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수퍼 헤지스는 크랙감이 있는 은색과 비비드한 색상의 사무엘스몰즈 스파이럴 케이블이 만난 비건 레더 소재 솔더백, '백꾸(가방+꾸미기)'를 할 수 있는 케이블 액세서리, 컬러풀한 실리콘 소재에 스크류처럼 포인 스파이럴 케이블 등으로 구성했다.

회사 측은 "이번 협업은 양 브랜드가 추구하는 '변하지 않는 헤리티지'의 가치에서 공통점을 발견해 시작했다"며 "패션과 리빙 소품의 만남"이라는 이중 업종 간 협업이 양측의 매력을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팬덤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프랑스 파리 '프랭팡 파리 코리아 클럽'에서 열린 헤지스 패션쇼. 사진제공 | LF